VIRTUAL LIFE

THE MANTA STORY

1화: 디지털 장의사

1 **INT. 태현의 작업실 – 밤** 1

어둠 속에서 모니터 여러 개만 빛난다.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리드미컬하게 울린다.

태현(30대 초반 남성, 검은 후드티)이 모니터를 응시한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과 데이터가 스크롤된다.

모니터 하나에 떠 있는 프로필: '故 김민수 (1991–2025)' 사진 속 남자는 환하게 웃고 있다.

태현
(혼잣말로)
페이스북 삭제 완료... 인스타그램 완료...
트위터는... 음, 2009년부터라 좀 걸리겠네.

옆 모니터에는 진행률이 표시된다: [디지털 기록 삭제: 47%]

스마트폰이 울린다. 발신자: '의뢰인 – 김민수 유족'

태현 (계속)
네, 진태현입니다.

유족 (V.O.)
(여성 목소리, 울먹이며)
작업은 잘 되고 있나요?

태현
네, 순조롭습니다. SNS는 거의 정리됐고, 이메일과 클라우드 작업 중입니다.

유족 (V.O.)
그... 혹시 이상한 건 없으셨나요?

태현
(눈썹을 찌푸리며)
이상한 거요?

유족 (V.O.)

아, 아니에요.
그냥... 깨끗이 정리해 주세요. 모든 걸.

전화가 끊긴다.

태현이 의아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다시 본다. 구글 드라이브 폴더를 열자 수천 개의 파일이 나타난다.

태현

일반인치고 데이터가 너무 많네...

한 폴더가 눈에 띈다: 'PROJECT_V' 용량: 847GB

태현 (계속)

(휘파람을 불며)
847기가? 뭘 이렇게 많이도 모아놨대??

기대하며 폴더를 클릭하려는 순간, 팝업창이 뜬다: '암호를 입력하세요'

태현 (계속)

암호화 폴더라...
이런 건 확실하게 숨겨둬야죠.

평소 같으면 그냥 삭제하겠지만, 호기심이 든다. 해킹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복호화 진행중... 12%... 34%... 67%...]

갑자기 모니터가 깜빡인다. 화면에 경고 메시지: 'WARNING: QUANTUM ENCRYPTION DETECTED'

태현 (계속)

(어리둥절)
개인이 쓸 수준의 암호화가 아닌데 이건?

[복호화 완료]

폴더가 열린다. 안에는 영상 파일 하나와 문서 파일들.

영상 파일: 'FOR_JIYEON_ONLY.mp4'

태현 (계속)
지연? 여친인가?

영상을 재생한다.

2 **INT. 영상 속 – 밤** 2

김민수가 카메라를 향해 앉아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배경이 현실적이지 않다. 마치 디지털로 렌더링된 공간 같다.

민수
(영상 속)
지연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죽었다는 거겠지.

민수가 씁쓸하게 웃는다.

민수 (계속)
(영상 속)
하지만 난 여전히 존재해.

화면이 일그러진다.

민수 (계속)
(영상 속)
서버 주소는 네가 알고 있는 그곳. 비밀번호는... 우리의 첫 만남.

2화

영상이 끝난다.

태현이 당황한 표정으로 의자에 기댄다.

태현
뭐야 이게...?

갑자기 작업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목소리

(문 밖에서)

택배입니다!

태현이 시계를 본다. 12시를 넘겼다.

태현

(긴장하며)

이 시간에 택배?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간다.

3 **INT. 작업실 현관 – 연속** 3

태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아무도 없다. 바닥에 작은 검은 봉투가 놓여있다.

태현이 봉투를 집어든다. 겉면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다.

4 **INT. 태현의 작업실 – 연속** 4

봉투를 뜯는 태현. 안에는 USB 하나만 달랑 들어있다. 메모도 없고 아무 표시도 없는 검은색 USB.

태현

(USB를 들여다보며)

누가 놓고 간 거야?

USB를 컴퓨터 앞에 가져가다가 멈춘다. 잠시 고민하는 표정.

태현 (계속)

(혼잣말)

바이러스라도 있으면...

USB를 책상 위에 내려놓는다. 다시 모니터를 본다.

김민수의 구글 드라이브가 여전히 열려있다.

스마트폰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

태현

여보세요?

지연 (V.O.)
(젊은 여성 목소리, 조심스럽게)
진태현 씨 맞으시죠?

태현
네, 누구시죠?

지연 (V.O.)
저는 한지연이라고 합니다.

태현
무슨 일이실까요?

지연 (V.O.)
민수 씨, 아시죠?

태현
(모니터를 보며)
안다고 해야 하나...
그분과 관련된 일을 하곤 있는데요.

지연
관련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일, 을지로로 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태현
(귀찮은 듯)
전화로는 안 될까요?

지연 (V.O.)
전화로는 어려워요. 내일 오후 3시, 을지로 카페 '수선화'로
와주세요. 아시죠?

태현
수선화요? 알긴 하는데...

지연 (V.O.)
꼭 오셔야 해요. 꼭이요.

전화가 끊긴다.

태현이 모니터를 본다. 글리치가 일어난 민수의 얼굴이 화면에 멈춰있다.

5 **INT. 카페 수선화 – 다음날 오후** 5

을지로 골목의 오래된 카페. 빈티지한 인테리어와 조용한 분위기.

태현이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여자가 손을 든다. 한지연(20대 후반, 수척한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다).

태현
(앉으며)
한지연 씨?

지연
와주셔서 감사해요.

지연, 태현을 뚫어지게 본다.

지연 (계속)
민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태현
(갸우뚱하며)
다 알고서 연락 주신 줄 알았는데... 고인의 디지털 기록을 정리하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가족분들이 의뢰하셨다고...

지연
(쓴웃음)
가족이요...

태현
네, 유족이라고...

지연
민수에게는 가족이 없었어요.

태현
(놀라며)
네?

지연

부모님은 예저녁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어요. 천애고아나 다름없었죠.

태현

그럼 의뢰한 사람은 누가...

지연

그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누가 왜 민수의 흔적을 지우려는 건지.
뭘 지우려고 하는 건지

태현이 당황한 표정으로 지연을 본다.

태현

혹시...
민수 씨가 무슨 일에 연루되어 있었나요?

지연

(잠시 망설이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태현

말씀하세요.

지연

민수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태현

(충격)
네? 분명 사망 기록을 확인했는데요?

지연

저도 알아요. 2주 전에 원룸에서 시신이 발견됐죠. 장례도 치렀고요. 하지만...

지연이 스마트폰을 꺼내 태현에게 보여준다. 카톡 대화창. 발신자는 '민수'.

지연 (계속)

어제 온 메시지예요.

화면의 메시지:
지연아, 나야. 믿기 어렵겠지만 나를 찾아.
태현이라는 사람은 믿어도 돼.

태현
(얼굴이 창백해지며)
이게... 무슨...?

지연
처음엔 누가 악질적인 장난을 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알게 됐어요.
장난일 수가 없어요. 우리 둘만 아는 내용들을 알고 있더라고요.

지연이 다른 메시지들을 보여준다.
민수와의 개인적인 추억, 둘만 아는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지연 (계속)
이건 민수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둘만의 비밀들...

3화

태현
혹시 미리 예약해둔 메시지는 아닐까요?

지연
(고개를 저으며)
실시간 대화예요.
제가 질문하면 바로 답이 와요.

태현의 주머니에서 진동. 스마트폰을 확인한다. 발신인 없는 메시지.

'USB를 확인하세요.'
태현이 놀라서 지연을 본다.

태현
방금... 이상한 메시지가...

지연
민수예요. 민수가 보낸 거예요.

태현

(혼란스러워하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지연

저도 몰라요.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카페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들어온다.
주위를 살피는 그들의 시선이 태현과 지연에게 멈춘다.

지연 (계속)

(긴장하며 속삭임)

저 사람들... 며칠 전부터 절 따라다녀요.